

신실한 제사장은 누구인가? (삼상2:35)

내가 나를 위하여 **신실한 제사장**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.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(삼상 2:35).

1. 역대 제사장들의 계보

- A. 아론은 영원한 제사장직을 받음(출 28,29)
- B.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드리다가 주 앞에서 죽음(레10:1-2)
- C.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무로 섬김(민3:4)
- D.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음(민20:24-29)
- E. 엘르아살이 죽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직을 받음(수24:33)
- F. 알 수 없는 이유로 대제사장 계보가 엘르아살에서 이다말로 넘어감
- G. 엘리 가문은 솔로몬 왕 시대까지 제사장직을 수행함
엘리 - 비느하스 - 이가봇과 아히둡 - 아히야(삼상14:3): 사울 왕 당시
- H. 아론 - 엘르아살 - 비느하스 - 아비수아 - 북기 - 웃시 - 스라히야 - 프라웃 - 아마라 - 아히둡 - 사독 (대상6:50-53)
- I. 다윗 왕 시대에는 엘르아살 집안과 이다말 집안이 모두 제사장으로 주를 섬김
- J. 엘리의 집에 속해 있던 아비아달은 아도니야의 왕위 즉위를 돕다가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직을 박탈당하여 쫓겨나고(왕상2:26-27), 사독이 대제사장이 됨(왕상2:35)
- K. 사독의 아들들은 주께 신실했으며(겔48:11), 천년왕국에서도 제사장으로 섬기게 됨(겔44:15)

2. 누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신실한 제사장인가?

- A. 사무엘
 - i. 그의 특별한 출생, 엘리 집안 대신에 제사장직을 물려받아 성소에서의 섬김
 - ii. 그의 집안은 아들들 때문에 견고하게 서지 못했음
- B. 아론의 전체 집안
 - i. 너무 광범위함. 모든 레위 사람이 다 항상 신신했던 것은 아님
 - ii.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사람을 말씀하셨음
- C. 예수 그리스도
 - i. 그분은 하나님께 신신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함(히3:1-2)
 - ii.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않으셨으며, 그분 자신이 기름부음 받은 자(그리스도)이지 기름부음 받은 자 앞에서 걷는 자가 아님.
- D. 사독의 아들들
 - i.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른 레위 사람들이 결길로 갔을 때에도 주께 대한 책무를 신실하게 지킴(겔48:11)
 - ii. 그들은 천년왕국에서도 주를 섬기게 됨(겔44:15)

3. 결론

- A. 이 대언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엘리의 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었으리라고 봄
- B.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볼 때에는, 엘르아살 가문에서 나온 사독의 아들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것에 대한 대언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음